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국가브랜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가브랜드라는 명칭과 개념은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부터 강조해왔다.

데 대한 위협도를 말하며 국가 명성도는 그 국가의 능력에 대한 기대의 정도이다. 국가 정체성은 그 국가가 스스로 내세우는 자기의 위상이다.

유명 브랜드 없는 국가 브랜드

이러한 국가 브랜드는 쌓아 올리는 것이다. 오랜 반복적 노력 끝에 어떤 국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Korea 국가 브랜드의 값을 올리는 것이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가 브랜드는 제품과는 달리 너무나 변수가 많다.

국가 브랜드는 한 나라 이름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응과 평가를 총칭한다. 이에 반해 국가 신인도는 한 국가에 투자하는

언론을 통해 거론된다. 정말이지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뿐이다. 지금까지 잘 사용해온 'Dynamic Korea'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인상을 준다.

거티브 어프로치로 힘들다. 또 하나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설정의 최우선 순위는 산업과 무역이라는 점에 이해를 같이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Korea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Korea 제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세계 500대 명품 브랜드에 한국의 브랜드는 거의 없다.

이 모든 일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매우 거창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제 위원회 주도로는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유흥업 성장률 1위' 뭘 의미하나

극심한 불황에도 호남지역 유흥업소의 매출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새로 문을 연 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년간 개별소비세 납부율은 54.3%(세액기준)나 급증해 전국 평균(4.6%)은 물론 대구경(20%)이나 부산경(10.3%)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업소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4년 동안 호남지역 유흥업소 증가율이 27.7%를 기록한 반면 전국 평균은 4.9%에 불과했고 부산은 오히려 0.9%가 줄어들어 호남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저속철' KTX-II 요금인상 안된다

한국철도공사가 올 12월부터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되는 KTX-II의 요금을 현재 운행되고 있는 KTX 요금보다 5% 정도 높게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는 말이 고속철이지 서대전~목포구간은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저속철'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14년(광주)과 2017년(목포)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5%의 요금이 인상될 경우 용산~광주는 3만8천400원에서 4만3200원으로, 용산~목포는 4만3천300원에서 4만5천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우리는 KTX-II 투입에 따른 비용증가분은 철도공사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는 게 옳다고 본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철도공사 측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 한글이 상품수출의 디딤돌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른섬 주민들은 이제 한글 사용을 넘어 아시아 경제강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교류강화도 희망하고 있다.

한글과 수출

우리나라에서 물경 5천600여km 떨어진 인도네시아의 부톤(Buton) 섬을 아...

그런 한글이 상품수출의 디딤돌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른섬 주민들은 이제 한글 사용을 넘어 아시아 경제강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교류강화도 희망하고 있다.

2007년 서울대 교수들과 흥민정음학회 등을 만들고, 이듬해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채택하는 사업을 후원해 이들을 위한 한글교재를 펴내기도 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9%가 줄어들어 호남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호남지역 유흥업 성장률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 유흥업소가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903개 업소에서 108억원으로 전국 6개 지방자치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업유치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흥업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등 여전히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이 광주·전남의 현실이다.

이제 한글 사용을 넘어 아시아 경제강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교류강화도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바우바우의 정부 관리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업들을 탐방하고 관광개발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내일은 한글날이다. 서울 광화문에 세종대왕의 새 동상도 들어선다.

천란한 문화유산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 돌기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현동 아름다운 눈 지키기. 아름다운 눈은 눈동자가 깨끗하고 크며 빛이 나기 쉬운 바닷물을 생각나게 한다.

기고 문상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보험의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은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전반적인 의미로 제도의 정착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고속버스, 과속 위험 경고장치 무시 다반사.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속버스 등은 과속을 막고 사고도 줄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버스가 과속 할 경우 일정 속도를 넘어 서면 차내 운전석 쪽에서 자동 경고음이 나오도록 설계돼 있다.

농민 현혹하는 인터넷 '사이버 계' 피해 예방책 필요. 얼마 전 농사 짓는 형님이 이런 것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며 컴퓨터를 열어서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이메일에 가입만 해도 매달 27만원씩 준다는 내용이었다.

無等鼓. 인도네시아의 부톤(Buton) 섬을 아...

光日日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독신전·배달안내 www.kwangju.co.kr